

신뢰와 정성을 양축가에게 배달하는 은성인



철 길은 우리에게 고향의 정과 향기와 정겨움을 선사한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경부선 철길을 따라가다 보면 신뢰와 정성으로 양축가의 문을 노크하는 은성산업(주)가 충북 옥천에 자리 잡고 있다.

은성산업(주)는 지난 69년 제사 공장으로 출발, 75년에는 연사공장을 가동하는 등 잠사분야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74년에는 배합사료 공장을 준공하여 축산업계와도 인연을 맺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착유우, 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사료와 양견, 핏, 오리 등의 특수사료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펠렛사료와 양축가의 기호에 맞는 주문사료에 이르기까지 40여종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6천 톤정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셈이다.

은성산업은 물량확보에 급급하

지 않는 한편 세태에 편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려 품질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은성산업 은 현순구 사장을 필두로 서울사무실에서는 경리와 자재업무를 맡고 있으며, 옥천에서는 생산분야의 공장이 서로 호흡하며 움직이고 있다.

현순구 사장은 모든 직원이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지닐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직원들은 모두가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제품이 생산되기에 고객인 양축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은성사료를 사용하는 사양가들이 회사를 믿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좀 더 많은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로 임해

야 함을 강조한다.

은성산업의 사료영업부는 경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감한 시설확장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전국이 은성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라는 야심 또한 대단하다.

영업부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그 활동영역이 활발하여 그 회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인간적으로 두터운 정을 맺으므로 고객과의 신뢰의 벽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처해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각 회사는 양축가를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며, 국내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고객의 구매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줌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영업부 직원은 모두 10명



△ 최병태 전무

최병태 전무

은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직원과의 융화감을 기초로 경영에 참여, 은성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은성의 기둥.

업무상 서울과 옥천을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항상 미안함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적이고 어진 아버지 모습을 지닌 소유자이기도 하다.



△ 송승섭 이사

송승섭 이사

사료판매 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를 맡아 보는 총무

퇴근 후에 얼큰한 찌개와 소주 몇잔을 걸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이지만 사료영업부에서는 주위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뒷사람.

업무적인 면에서는 정석을 고집하여 아랫사람들로서는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일처리능력면에서는 당차고 확실한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축산은 진정한 축산인이 축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한마디.



△ 이현수 차장

이현수 차장

농촌선도를 위해 축산을 전공했고, 실무를 경험하면서 항상 자신을 축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축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축산인 중의 축산인.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은근과 끈기로 생활하여 아랫사람을 자상함으로 감싸주는 둘째, 꿈, 황소 등의 별명을 지닌 매력만점의 사나이.

그런데 한가지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최대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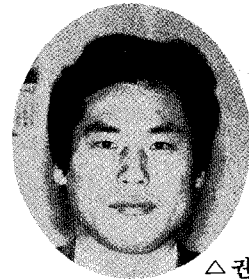


△ 박재진 차장

박재진 차장

청주, 보은지역을 담당하면서, 은성인의 자부심으로 활동하는 이마가 남보다 좀 넓은 사람.

또한 부하직원들을 잘 보살피는 자상한 어머니 같고, 가정에서는 "오 나의 아내여(I love you)"하는 철저한 애처가.



△ 권성수 차장

권성수 차장

은성사료의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양축가의 이익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고 있는 능력위주의 사나이.

전북, 충남, 대전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자기관리 및 고객관리가 철저하여 영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세일즈맨으로서 양축가가

은성사료를 선택한 이후 기쁨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고.



△김성주 과장

김성주 과장

키가 크고 듬직한 체구에 유머가 풍부하여 잠시 자리를 뜨기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들게 하는 명물 중의 명물.

영업활동은 안성, 평택, 천안, 전의지역을 담당하면서 거래선 확보에 중점적으로 뛰고 있는 열성 파이기도 하다.



△양진권

양진권

지역영업사원들의 연락을 받고 사료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꼼꼼한 일처리로 주위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며 아무진 일처리까지 장점 중의 커다란 장점이다.



△신영민

신영민

어린시절, 새끼돼지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로 죽어 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첫번째로 꿈게 되었으며 그 이후 축산인이 되고자 꿈을 키워 왔다고 한다.

충남, 공주,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보령 등지에서 따뜻하고 끈끈한 정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다.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해 탁구와 같은 간단한 운동경기도 '좋은꺼리'가 된다고 강조하는 아마취어 스포츠맨이기도.



△이진호

이진호

영업담당지역인 영동, 무주, 상

주가 고향이므로 고향의 축산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집에서 15년간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지극한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하지만 데이트 할 상대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이다.



△박봉욱 차장

박봉욱 차장

절실한 천주교 신자로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열성파.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부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날로 성장발전해 가는 회사를 지켜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애사주의자(愛社主義者).